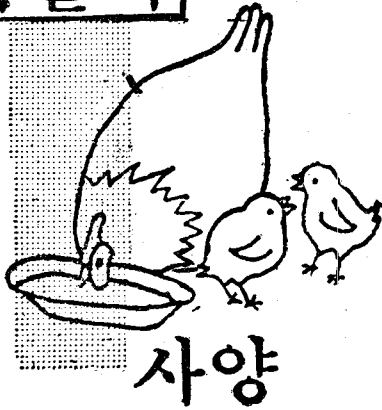


이달의



사양

이달은 소서(小署), 초복(初伏), 대서(大署)가 겹치게 되므로 연속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아울러 장마철의 영향으로 집중적인 폭우 또한 우려되는바 계사내의 과습방지과 농장내의 환경미화작업(특히 배수 시설의 완비)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기온상승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역점을 두어 관리 운영되어야 하겠다. 또한 각종의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체체를 자극시키므로 오는 산란율의 저조, 증체율의 감소, 식욕부진과 활동력의 퇴보등으로 경영상의 많은 애로점이 우려되는 바 크다. 아울러 각종 미생물로 부터의 체체 보호, 기구 시설상의 결합 해소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결등을 포함한 계획성있는 경영이 요구된다.

1.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의 해소

연속적으로 엄습하여 오는 무더위는 체체의 활동력에 커다란 마이너스를 초래시킨다. 특히 이 시기에는 추울때보다 더 세심한 체체의 건강관리가 요구되게 된다.

더위로 인한 음수량의 증가는 하리를 촉진시키게 되며 계사내의 과습을 초래하여 각종 미생물 번식의 서식처를 제공

해주는 요인이 됨을 주지할때 아래의 몇가지를 음미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자.

① 정기적인 접종이나 닭의 이동시는 어떤날 어느 시간에 실시하고 있는가?

② 복사열에 대한 대책으로 계사주변에는 상록수나 잔디를 가꾸고 있는가?

③ 계사 천정이나 벽에의 방열제 여부는 어떤가?

④ 계분 발효시의 자체열을 방지키위해서 계분은 2~3일에 1회정도 제거하고 있는가?(물론 케이지에 적용되겠지만)

⑤ 야외사육장에 그들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

⑥ 급수기에는 항상 청결수가 흐르고 있는가?

⑦ 계사내외의 환기창 개방과 함께 방충망의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⑧ 산란시의 밀집을 방지키위해서 산란상자수효는 확장하고 있는가?

⑨ 취침시의 밀사를 방지키위한 분산 대책은 어떠한가?

⑩ 폐계검출시 마다 닭과는 생경이를 하지 않는가?

⑪ 케이지의 단위당 수용수수를 분산시키고 있는가?

⑫ 관리자들은 의욕과 성실로서 관리에 임하고 있는가?

이상의 몇가지에 대한 우선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장마철에 대한 대책

장마철마다 느끼는 것이 계사내의 과습방지이다. 사전에 결합이 없는 계사시설이 있다면 관리가 쉽겠지만 계사구조

7월

정 보 남
<한국가금협회 결정소>

의 결합시에는 상당한 노동력의 손실을 초래시킨다. 아래 몇가지에 대한 다소의 소홀하지 않았는가 다시 확인하자.

① 파손된 유리창이나 환기공, 천정스트리트등의 보수는 끝났는가?

② 계사주위의 배수로는 사내(舍內) 보다 낮게 파놓았는가?(반대의 경우는 사내로 침수되어 많은 손해를 보게된다)

③ 파습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가?(백회비치등)

④ 폭우에 대한 대책으로 계사주위(특히 경사진 곳)에는 잔디나 상록수를 심어 놓았는가?

⑤ 계분창고는 견고하여 침수시의 유실량은 없었는가?

⑥ 간이계사의 주위에 친 비닐은 이중삼중으로 쳐서 강풍에 찢어짐을 방지하고 있는가?

⑦ 케이에서의 계분은 수시로 제거하는가?

⑧ 전기 배선을 점검확인하였는가?(누전 방지)

⑨ 갑작스러운 온도 하강을 막기위해 옥추실이나 부화실에는 비상난로를 시설하였는가?

⑩ 평사에서의 자릿것은 수시로 제거하는가?

⑪ 평사에서의 급수기주위는 자갈·모래나 톱밥을 깔아 파습을 방지시키고 있는가?

⑫ 농장입구의 도로는 잘 포장하여 사료나 물품 입고시의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가?

⑬ 케이지 사내의 침수시에 배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몇가지를 체크하면서 장마철을 맞아 사내의 파

습제거에 힘써야 되겠다.

3. 환경위생과 방역

가. 우물 및 수도관리

대개의 농장을 돌아보면 단일우물을 이용하거나 각계사마다 펌푸를 몰어 식수를 해결하고 있고 좀더 잘된곳은 양수기를 이용하여 각계사마다 급수시키는 실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급수방법이 어떠한 간에 식수로 사용하는 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좋은가이다.

번두리의 농장에서는 소독도 제대로 안된 자연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하에 있다. 더구나 우물에는 뚜껑을 단지않아 그나마도 몇년에 한번 우물을 청소할때면 으레히 각종 잡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우선 우물관리부터 철저히 한 후 계사관리에 임해야 될 것이다. 또 수도는 어떤가, 수도꼭지를 빼어보면 실지령이나 시퍼런 곰팡이 등이 서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소한도 1년에 2회 이상은 소독을 실시할 것이며 청소도 아울러 하여야 되겠다는 것이다.

나. 방충망의 시설

실내의 무더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사내외부의 창문은 개방하게 되는데 이때는 각종 외부 기생충과 동물로 부터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방충망을 시설하여 이들로 부터 계체를 보호해 주어야 하며 정기적인 살충제의 살포와 내외부의 환경미화 작업

을 철저히 하여 이들의 접근을 막도록 노력하여야겠다.

다. 위생관념의 음미

계사에서의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장화등의 착용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동일한 사람이라도 다른 옷을 입고 계사에 들어가면 닭은 기억력의 혼동을 빚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런 점은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아래 몇가지를 생각해보자.

① 농장 내에는 외부 인사의 접근은 물론 동물의 침입과 농장내의 물품교류도 강력히 억제시켜야 한다.

② 각 근무처(부화실, 옥추실, 성계사)의 종업원은 같은 시각에 식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③ 친지나 친구의 방문 또는 외출시 현지복장대로 계사를 순시나 왕래함도 고쳐야 한다.

④ 종업원들의 목욕과 세탁을 자주 시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⑤ 농장내외의 환경미화작업을 하여 외부인사들로 부터의 불결감을 없게해야 한다.

⑥ 죽은 닭을 판매하거나 종업원들 식사에 제공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⑦ 식당과 숙소, 사무실, 변소는 인접해서는 안된다.

⑧ 정문에는 물로 소독수를 대신 사용하는데 이점에 대한 시정은 시급하다고 본다.

⑨ 계분창고를 도로변에 시설하여 왕래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